

새로운 평가기준 개발로 더 나은 ESCO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너지관리공단 1층 대강의실에서 연구용역 추진내용에 관해 ESCO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ESCO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ESCO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으며, ESCO 발전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수 있는 시간이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ESCO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목표와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ESCO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전주대학교 조성환 교수는 성과보증과 성과배분 계약의 장점을 결합한 新계약모델의 단계적인 도입을 제시하고, 업체들 간의 전문성과 품질향상을 촉구하는 방안과 경쟁체제도입에 관해 중점적으로 역설했다. 이날, 조 교수의 자금추천 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MRV 계획서에 관한 설명을 끝으로 설명회가 종연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견 수렴 및 질의와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는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으며, ESCO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들이 오갔다. 12월에 진행된 공청회에 앞서 사전 기획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설명회장 안을 가득 채웠다.



조성환 교수가 신계약모델 개발, 새로운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중이다.



7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이번 설명회는 모두가 새로운 평가기준에 대한 비상한 관심으로 뜨거운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는 사업별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세부자료, 샘플링 및 신뢰도, 유지관리계획, 세부 에너지사용량 등이 보강된 MRV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 및 응답 시간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ESCO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ESCO산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과 ESCO협회는 지난 12월 21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ESCO산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ESCO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수립된 일부 추진과제의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수행한 ‘ESCO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전주대학교 조성환 교수는 “향후 ESCO시장은 ESCO에게 큰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ESCO업체의 기술력과 자생력을 높여줄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각 패널들은 연구용역결과에 공감하면서 ESCO기업이 에너지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각각의 M&V 프로세스 개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